

가봉 첫 승 뒤 '동료들의 힘' 있었다



지난 2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가봉이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 롯데전, 삼수 끝 KBO 데뷔승...6이닝 2피안타 무실점 위력투 최형우·한승택 홈런으로 기선제압...나주환, 무사 1·2루서 삼중살 수비

동료들이 힘을 모아 가봉의 첫 승을 도왔다. KIA 타이거즈의 가봉은 지난 20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시즌 2차전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며, 세 번째 도전 끝에 KBO리그 데뷔승을 거뒀다. 앞선 두 번의 등판에서 출발이 좋지 못했던 가봉은 1회를 깔끔한 삼자범퇴로 여는 등 한층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6이닝을 2피안타 2볼넷 무실점으로 막은 가봉은 탈삼진 9개도 뽑아내면서 6-0, 팀의 시즌 첫 영봉승을 이끌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앞선 등판에서는 제구 등이 좋지 않았는데 시작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가봉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수훈선수로 언급하기도 했다. 좋은 피칭을 보여준 가봉 뒤에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앞선 두 차례의 등판에서는 야수진들의 보이지 않은 실수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공·수에서 야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1회말 KIA의 첫 공격에서 최형우가 선제 투런포를 날려줬고,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한승택도 5-0으로 앞선 6회말 승부의 추를 기울이는 솔로포로 힘을 실어줬다. 두 경기 연속 홈런포를 날린 한승택은 "직구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었다. 송지만 코치님께서 타격 신경 쓰지 말고 수비에 집중하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 자신 있게 내 스wing을 하고 있다"며 "내가 홈런을 친 것보다는 팀이 이겼다는 게 더 의미 있다. 포수니까 아무래도 수비에 신경이 더 쓰이는데, 어제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다. 가봉 경기 때 결과가 안 좋

아서 미안하기도 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가봉의 승리를 기뻐했다. 가봉의 첫 승에는 결정적인 수비도 있었다. 가봉이 4회 선두타자 전준우에게 중전안타를 맞은 뒤 손아섭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무사 1·2루에 몰렸다. 위기 상황에서 8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한 나주환의 노련함이 빛났다. 이대호의 땅볼 타구를 잡은 나주환이 바로 3루 베이스를 밟은 뒤 2루로 송구를 했다. 손아섭이 도착하기 전에 공을 받은 2루수 김선빈이 빠르게 1루로 공을 뿌렸다. 이대호보다 공이 먼저 1루수 황대인의 글러브에 들어가면서 프로야구 통산 73번째 삼중살이 완성됐다. 배터랑 나주환의 준비된 플레이였다. 나주환은 "가봉이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고 열심히 하는데 승리를 못 했다. 야수 입장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승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며 "(이대호 타석 때) 삼중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바운드가 크게 오지 않으면 바로 삼중살을 노리려고 생각했다. 때마침 공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1루 주자가 발 빠른 손아섭이었기 때문에 2루 던지면서 걱정도 했는데 선빈이 한테 잘 연결됐다. 가봉의 승리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앞선 경기에서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회부터 마지막 이닝이라는 생각으로 전력 다했다"는 선발 투수. 그런 동료들 위해 공수에서 힘을 내준 야수들의 팀워크가 가봉의 첫 승과 팀의 첫 영봉승을 만들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900 4사구 최형우 "아프지 않고 하다보니"

덕아웃 T 특특

▲아프지 않고 하다 보니까 = 꾸준함의 대명사 최형우가 통산 17번째 900 4사구 기록을 달성했다. 최형우는 지난 19일 롯데전에서 1회 2사 2루에서 선제 투런포를 날린 뒤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라 출루에 성공했다. 이 볼넷으로 최형우는 900 4사구를 채웠다. 최형우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면서도 "안 아프고 꾸준히 이런 기록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선 18일 스타팅 라인업에서 나홀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던 최형우는 "중심 이동을 생각하고 타이밍을 신경 썼다. 좋은 선수를 상대로 이겨서 기분이 좋다"며 "(스트레일리가) 직구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초구를 봤는데 공이 좋았다. 타격 포인트를 앞에 두고 치려고 했는데 운 좋게 잘 맞았다"고 2호포에 대해 설명했다. ▲러닝 히트 상황이었을 겁니다 = KIA는 19일 롯데전에서 KBO리그 통산 73번째, 팀 8번째 삼

중살을 기록했다. KIA의 앞선 삼중살은 지난 2011년 5월 8일 SK 문학전에서 나왔다. KIA가 2-1로 앞선 연장 11회말, 무사 1·3루에서 조동화의 타구가 투수 유동훈의 글러브로 들어갔고 스타트를 끊었던 주자들이 귀루에 실패하면서 사상 첫 끝내기 삼중살이 기록됐다. 이현근 코치는 선수와 코치로 귀한 장면들을 직접 봤다. 문학 삼중살 당시 유격수였던 이현근 코치는 "아마 런 앤 히트 상황이었을 것이다. 주자가 이미 스타트를 끊어서 삼중살이 만들어졌다"며 "손지환 코치가 삼중살을 했을 때도 현장에 있었다"고 웃었다. KIA는 2007년 6월 13일 삼성 원정에서도 삼중살을 만든 적이 있다. 이때는 2루수 손지환이 바로 공을 잡은 뒤 나홀로 3개의 아웃 카운트를 책임졌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삼중살을 본 적은 있지만 직접 플레이는 해본 적은 없다"며 "야구장에 오면 어떤 장면을 보게 될지 알 수 없다. 어제 같은 경우는 희귀한 플레이였다. 라인드라이브가 아닌 땅볼 타구에서 삼중살이 나오는 건 흔치 않다"고 언급했다.

▲경험이 있어도 방향이는 왜 안 될까 = 4회초 무사 1·2루에서 삼중살의 주역이 된 나주환. 나주환은 KIA에서 1·3루를 오가며 안정감 있는 수비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타격은 욕심만큼 되지 않는 나주환이다. 그는 "수비는 경험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고 더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런데 방향이는 경험이 있어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고민이다"고 웃었다. ▲잘할 때를 대비해서 기르고 있어야 = 동성고 출신의 롯데 마무리 김원중은 올 시즌 '장발'을 고수하고 있다. "기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한 김원중은 "마운드에서 커 보이는 느낌이라고 할까. 타자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것 같다. 임마는 머리 자르라고 하시는데 야구 잘하면 사람들이 좋게 볼 것이다. 잘할 때를 대비해 기르는 것이다"며 웃었다. 처음 해보는 마무리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마무리로 많은 경기를 안 뛰어서 잘 모르겠다. 더 해봐야 마무리에 대해서 알 것 같다"며 "1회를 던진다는 게 선발하고 다르다. 집중 7번 하는 것과 한 번 하는 차이다.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편한 것 같다. 집중해서 좋은 역할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광주시민 위한 유니폼 출시



'시민의 날' 기념 제작...지역연고 유대감 높여 KIA타이거즈가 광주시민의 날(5월 21일)에 맞춰 '광주 유니폼'을 출시했다. 유니폼은 광주연고팀의 자부심을 강조하고 지역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했다. 흰 바탕에 광주의 영문인 'GWANGJU'를 감청색으로 수놓았고, 노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다. 감청색과 노란색은 광주시의 상징색이다. 광주 유니폼과 함께 출시된 모자도 감청색 T로고와 노란색 테두리로 표현했다. 유니폼의 어깨와 모자 옆에는 광주 랜드마크인 서석대와 챔피언스필드 이미지를 조화한 엠블럼이 부착됐다. 엠블럼의 바탕은 광주 지형도다. 광주 유니폼과 모자는 KIA타이거즈 온라인숍(<http://lockerium.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유니폼의 가격은 7만9000원, 모자는 3만5000원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창 끝 다듬은 광주, 첫 승전보 올리나

K리그1 내일 상주 원정 펠리페·두현석 등 출격 준비 끝 리그2 전담은 서울서 연습 도전

수비 전열을 가다듬은 광주FC가 상주에서 첫승에 도전한다. 광주가 오는 23일 오후 7시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상주 상무와 하나원큐 2020 K리그1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성남FC와 개막전에서 0-2로 졌던 광주는 앞선 서울 원정에서도 0-1로 패했다. 높은 K리그1 무대를 실감했지만 앞선 서울전에서 자신감도 얻었다. 광주는 박주영, 아드리انو 등이 포진한 서울을 두터운 수비로 막으면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다. 아쉽게 한찬희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승점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지난 시즌 리그 최고 실점(36경기 31실점)을 기록한 잔물 수비가 되살아났다. 중원의 왕성한 움직임과 맞붙려 포백과 스리백의 유기적인 전술변화도 선보였다.

한층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 광주는 이제 과감함으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관전은 때서운 창외 부활 여부다.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에 빛나는 펠리페가 집중 견제를 당하면서 발이 묶였다. 서울전에서 펠리페와 투톱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 김주공과 캡틴 여름이 공격 실마리를 찾아줘야 한다. 여기에 휴식을 취한 자원들의 에너지도 넘친다. 앞선 경기를 윈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마르코와 스피드를 앞세운 두현석, 이희균 등이 출격 준비를 마쳤다. 두 경기 패배를 통해 전열을 재정비한 광주는 화력까지 더해 완벽한 밸런스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박진섭 감독은 "선수들이 1부리그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는 게 중요하다. 경기력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만큼 더 과감하고 짜임새있는 플레이로 나설 생각"이라며 "축전 자원이 없는 게 아쉽지만 맞춤형 전략을 찾고, 후환과 끈근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전남 드래곤즈는 24일 오후 6시 30분 잠실주경기장에서 연습에 도전한다. 전남은 경남FC와의 개막전에서 0-0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점을 확보한 뒤, 제주유나이티드와 홈개막전에서는 1-0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강적들과의 승부, 이번 상대도 만만치 않다. FIFA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던 정정용 감독으로 새 판을 짜 서울이랜드가 전남의 세 번째 상대다. 새로운 사령탑을 앞세운 서울이랜드는 앞서 1라운드에서 제주, 2라운드에서 경남을 상대했다. 전남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두 팀을 상대로 2무를 기록했다. 승리는 없었지만 세 골을 기록하면서 열의를 끝냈다. 또 서울이랜드의 새 외국인선수 레안드로가 앞선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으로 2라운드 연속 K리그2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앞선 두 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특히 골키퍼 박준혁이 앞선 제주전에서 선방쇼를 펼치며 팀의 승리를 지키고 베스트 11에도 선정됐다. 박준혁을 중심으로 한 전남의 수비가 새로운 창을 앞세운 서울이랜드의 공세를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연습을 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주장 여름(왼쪽)이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상주전에 대비해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